

초광역 연계 이차전지 특화단지 연계협력 강화

전북자치도 등 4개 지자체,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협의체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이규택 원장)는 23일~24일 양일간, 군산 은파팰리스 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등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된 4개 지자체와 테크노파크(TP)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초광역 연계 이차전지 특화단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울산·충북·경북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 간의 상생 협력 강화와 실질적인 공동사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각 단지의 특화 분야를 연계한 초광역 신규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존의 R&D 중심 협력에서 벗어나 BIR&D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



전북특별자치도와 테크노파크는 군산 은파팰리스 호텔에서초광역 연계 이차전지 특화단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탄소산업과, 군산시 신성장산업과,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4개 권역 특화단지 추진단,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현 정부의 이차전지 비전과 추진 방향 △특화단지 활성화 방안 △초광역 신규사업 발굴 논의 등 공동 협력 사업 모델 발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이를 통한 특화단지 활성화 전략을 모색

했다.

도 관계자는 "4개 특화단지가 보유한 산업적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면,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특별자치도도 초광역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이차전지 산업은 특정 지역만의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는 산업"이라며, "권역 간의 연계와 협력 구조가 정착되어야만 세계적인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앞으로 지역 간 장점을 공유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권역별 특화단지 간 공동사업 발굴 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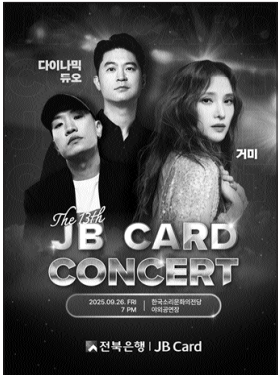
‘고객에게 주는 특별한 음악선물’

전북은행, 오는 9월 제13회 JB카드 콘서트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 오는 9월을 맞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제13회 JB카드 콘서트를 열고 고객들에게 특별한 음악 선물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는 9월 26일 펼쳐지는 제13회 JB카드 콘서트는 국내를 대표하는 감성 보컬리스트 '거미'와 합창듀오 '다이나믹듀오'를 초청해 고객 참여 이벤트 및 불꽃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콘서트 참여 방법은 JB카드 고객 중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응모일 기준 카드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북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쓱뱅크 앱에서 최대 8매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포인트 미보유 고객의 경우 선포인트로 최대 2매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포인트 신청분은 11월 결제일에 청구



된다. 당첨자는 9월 1일에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거미의 감미로운 발라드와 다이나믹듀오의 에너지적인 공연을 통해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으로 남도록 풍성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복구 총력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1200여 건이 넘는 전기점검을 수행하는 등, 긴급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1,257개소의 긴급 전기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취약계층 주거지(1,117개소)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시대피소(121개소)와 아파트 등 대규모 시설(16개소), 태양광발전소(3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는 지난 20일부터 긴급 복구활동을 시작했다. 폭우 피해가 큰 경남·전남·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침수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사고 등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배선·누전차단기·콘센트 등 주요 설비 점검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2일부터는 공사 임원진도 현장 점검에 나섰다. 남화영 사장은 22일 경남 산청군에 이어, 23일 전남 함평군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농협 ‘제27회 명품전주복숭아축제’ 성료

전주풍남문 광장에서… 화채 나눔 퍼포먼스 ‘큰 호응’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24일, 전주풍남문 광장에서 '제27회 명품전주복숭아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전주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개최되

는 전주농협의 대표적인 직거래 행사다.

이날 개막식은 명품전주복숭아축제 추진위원장이자 전주농협 조합장인 임인규 조합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우범기 전주시장, 안찬우 농협중앙회 전



농어촌공 전복, 침수 피해 현장 찾아 긴급 복구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4일 5개부서 100여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남원시 송동면 신령리 딸기농가를 찾아 복구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번 피해 농가는 약 1,200평 규모의 딸기 비닐하우스로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상토가 유실되고 재배 기반이 크게 무너진 상황이었다. 전복

본부 직원들은 작업장비와 물품을 준비해서 이른 아침부터 침수된 상토를 퍼내고, 뒤엎긴 시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농가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활동을 펼쳤다.

복구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린 김동인 전북본부장은 "전북본부는 단순한 재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북지역본부장이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전하며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중반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복숭아 화채 나눔 퍼포먼스'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복숭아를 활용해 만든 시원한 여름 화채를 현장에서 즉석으로 나누며, 지역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행사장에서는 전주 관내 복숭아 재배농가들이 직접 출하한 신선하고 고품질의 전주복숭아가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되었으며, 복숭아 시식 코너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임인규 조합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께서 전주복숭아의 맛과 가치를 함께 나누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재생에너지 전기 신사업’ 도전

전개공, on-site PPA 방식 시범사업 추진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등록절차를 마치고 '전기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시범사업으로 전주·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1,232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과학원에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On-site(온·사이트) 방식의 직접 전력구매계약으로, 한전 송전망을 이용하지 않고 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송전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대근 사장은 "이번 On-site 직접 전력구매계약 사업은 지방공기업 최초로 추진하는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향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탄소산업진흥원, 제품 표준개발 등 연구과제 교류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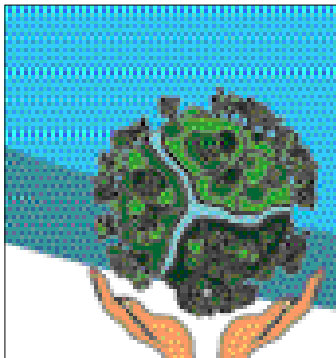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국내 탄소소재 및 응용제품 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품 표준개발 및 보급사업 연구과제 교류 워크숍'을 지난 17일 전남 여수 신라스테이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제표준개발지원사업과 탄소제품 인증 표준시험법 개발 지원사업의 과제별 추진 현황 공유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탄소소재 및 응용제품에 대한 국제표준, 단체표준 제정에서의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그래핀, 탄소섬유, 활성탄 등 6대 탄소소재 표준화 연구를 수행중인 주관·참여기관 관계자 25명이 참석해 9개 과제 성과 발표, 질의응답,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으며, △국제표준(ISO/IEC) 개발 진행상황 △단체표준 제정 준비 현황 △현장 애로사항 및 협력 방안 논의를 비롯해 세부 전략도 함께 검토됐다.

뿐만 아니라 수행 기관 간 기술 경험과 정보를 공유, 국산 탄소소재 응용제품의 표준시험법 적용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전주매일 에너지행동